

與 “문제 본질 벗어나” 잇단 악재... 이낙연 대표 ‘정면돌파’ 승부

(더불어민주당)

추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舌戰

野 “청탁 금지법 추진”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민주당 “진실은 없는 작금의사태”
국민의힘 “다윗 이기는 세상 만들것”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을 두고 방어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세에 집중했다. 전날(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째 추 장관 자녀 의혹을 두고 여야 여론전이 이어지는 셈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복무 관련 문제가 본질을 벗어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이 사안의 핵심은 휴가가 적법하게 허가됐는지, 통역병 선발에 부당함이 있어 권력에 의해 공정한 가치가 침해받았는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녀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사퇴하라’고 주장한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이어 “병사의 휴가는 규정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 상향을 고려해 조치할 사항”이라며 “진실은 온데간데 없이 작금의 사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더욱더 피곤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에 “(결과적으로 추 장관 자녀가 통역병) 선발이 안 된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법)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벌어졌다. 추

장관 아들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 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이고, 거인인 골리앗 장군은 권세를 악용해 다윗에 대한 토끼몰이식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골리앗 장군 아들은 당 대표 엄마, 당 대표 보좌관, 국방부 장관 보좌관 도움으로 마음껏 휴가를 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팍박받는 사회는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다윗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가정 ‘추 장관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 군 인사 청탁을 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군 인사 청탁 원천 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정 장관으로부터 추 장관 자녀가 군(軍) 복무 당시 병가를 허가받는 과정 중 규정 위반 사실도 끌어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하 의원이 ‘추 장관 자녀와 같이 병가를 받지 못한 한 병사 사례를 언급하며 어느 경우가 옳은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병가를 받지 못한 사례를) 제보한 청년이 맞고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특혜를 준 것이 맞지 않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추 장관 자녀인) 서 일병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왜 안 남아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추 장관 자녀 의혹에 검찰수사 촉구
우상호 의원 카투사 비하 발언 사과
이스타 관련 이상직의원에 경고 등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악재’를 겪으면서 이낙연 대표가 주목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기간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실언’, 이스타항공 ‘대량 실직 위기’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이 있는 김홍걸 의원,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 등 민주당이 갖가지 난제에 휘말린 상황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갖가지 난제에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의혹에 휘말린 대상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쟁 대상이 된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쟁을 되도록 피하면서 산적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더 확실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상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이 추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실언’을 하자 이에 대해 예들러 비판한 셈이다.

앞서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사과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관련한 논란도 지적했

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창업주로서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 일가에서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38.6%(약 410억원)를 헌납해 뒤늦게 직원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 한 대목도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우리 당이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이 의원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당은 이스타항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홍걸 의원에 대한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김 의원은 올해 4·15 총선 당시 보유한 주택 4채 가운데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 1채(12억원 상당)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매각을 약속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는 차남에게 증여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최영훈 기자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 “복구비용 등 추가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 5곳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11시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지역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위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피해)액을 충분히 초과해 우선 선포된 것”이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며 “정부는 앞으로 중앙 합동 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곳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라 국고 등 추가 지원 조치가 있을 예정”이

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태풍) 피해 지역에 효과적인 수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하이선과 관련해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태풍 마이삭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경로로 하이선이 오는 바람에 일부 지역은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있다”며 “재난 당국은 두 개의 태풍을 묶어서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정부 당국에 지시했다.

/최영훈 기자

내달 초·중·고 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서울시교육청, 진로체험 기회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20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온라인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로 매년 미래 직업 변화에 대비한 맞춤형 진로설계 기회를 마련해오고 있다. 3만 5000여명의 학생에게 진로체험, 진로상담 등을 제공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이 마련됐다.

박람회 전시관에서는 특성화고 33



교, 교육청 유관기관 35곳(25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포함), 일반 기업 8곳 등 87개 기관이 온라인 부스를 운영하면서 유망 현존 직업과 미래 직업군을 소개하고 직업정보를 제공한다.

미래 진로에 대한 특강도 진행된다.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강서소방서 구급대원과 서울성모병원 간호사 ▲권일용 프로파일러 ▲김태곤 게임개발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hji@

농식품부 ‘태풍피해 벼’ 수매희망 물량 매입 추진

매입규격 신설 내달 19일부터 매입

정부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 매입 규격을 신설해 매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해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을 10월 19일부터 매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농가들은 최근 집중호우와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잇따른 태풍으로 벼 쓰러짐이나, 수밭아(비가 많이 와 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흑·백수(강풍 등으로 생육 장애 발생, 낱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해 썩정이가 되는 현상) 등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현재 이런 피해 상황과 지역



최근 태풍 2개가 잇따라 동해안을 훑고 지나간 강원 강릉시 외곽 농촌에서 주민이 태풍에 쓰러져 묶어 세운 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별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지자체를 통해 이달 28일까지 조사한다. 벼를 쟁

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태풍 등에 의해 손상된 낱알(피해립)의 비율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별도의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피해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기준으로 피해 벼의 제현율, 피해립 등 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 직후 중간생산금을 지급하고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포대벼 단위(30kg 및 600kg)로 매입하고 공공비축용 벼와는 달리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